

## THE CHURCH IN TORONTO

##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1 주

##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

2008년 2월 4일 ~ 2월 16일

##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575, -, -, 440, - (영 793, 595, 904, 598, 902)

성경: 마가복음 6:35-44, 8:1-9; 학개 1:1-3, 23; 고린도전서 9:1-15

## 📖 마가복음 6:35-44

35.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39.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떡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 📖 마가복음 8:1-9

1.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매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흠어 보내시고

## 📖 학개 1:1-3, 23

1. 칠월 곧 그 달 이십 일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 <sup>23</sup>.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9:1-15**

<sup>1</sup>.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sup>2</sup>.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sup>3</sup>.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sup>4</sup>.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sup>5</sup>.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sup>6</sup>.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sup>7</sup>.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sup>8</sup>.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sup>9</sup>.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sup>10</sup>.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sup>11</sup>.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sup>12</sup>.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sup>13</sup>.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sup>14</sup>.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sup>15</sup>.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 제 11 주 :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마가복음 6:41-42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신실하고 근면한 믿는이들을 위한 말씀

요즘 내게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한다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신실하지만, 우리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나 열매가 없다. 종종 우리는 부지런하지만, 우리의 근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축복이나 열매가 없다. 종종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때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다. 조만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신실함이나, 근면함이나, 믿음이나 기도들이 모두 부질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비록 우리가 잘못 되었든지 혹은 소망이 없던시간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이다.

## ◆ 주님은 전진하실 길까지 우리를 가져가실 것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면에 대하여 다섯 덩어리의 떡이 늘어난 사건(막 6:35-44, 8:1-9)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덩어리의 떡이 우리 손에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셨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설령 다섯개 이상의 떡 덩어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사 오천 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의 열배 혹은 백배 이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 오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창고에서 무엇을 꺼낼 수 있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큰가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이 당신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이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떡 덩어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진정 아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한가지 문제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일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이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는 떡 다섯 덩어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는 사 오천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크다. 나는 우리의 필요가 사도 시대보다 더 큰데 우리의 창고 속이 사도들의 창고보다 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우리 자신의 저장, 근원, 능력, 수고 및 신실함이 어느 날인가 아무런 소용 없음이 드러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임으로 커다란 실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왜 주께서 본질이나 행위에서 거의 같은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가? 나는 이 공과가 배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 왜 주님은 오천 명을 먹이시고나서 사천 명을 먹이셨는가? 거의 동일한 종류의 두 기적을 복음서에서 두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이 공과를 배워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의 손에 있는 몇 덩어리의 떡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손에 있는 떡 덩어리들은 보잘 것 없이 적지만, 여전히 그것들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더욱더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일은 점점 더 힘들어 진다. 때때로 불가능해질 때도 있다. 나는 약 백여 년전에 한 형제가 한 말로 다소 위로를 삼는다. 그는, 『주께서 작은 기적을 행하기 원하실 때, 주님은 나를 힘든 상황에 두신다. 주께서 커다란 기적을 행하기 원하실 때, 주님은 나를 불가능한 상황에 두신다.』 라고 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인다. 많은 때 정말 힘들며 우리 자신이 떡 몇 덩어리를 갖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아 보인다. 우리는 단지 기적을 소망할 수 있으며 이 기적은 주님 자신께서 그 떡 덩어리들을 들어 올리시고 축복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외부 환경은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 우리의 눈이 환경들에 고정되면, 그것을 헤쳐나갈 아무런 방법

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반복해서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신다. 이럴 때가 주님의 축복하심이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어려운 것이 없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며 쉬운 일이 없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처하지 않았던 지점인 제일 첫번째 위치를 그분의 축복하심이 차지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곳으로 데려가실 때, 주님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이 지점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백 데나리온의 떡도 충분치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우리 자신 속에서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돈을 모아도 충분하지 않다. 뭉쳐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분치 않지만, 주님은 길을 갖고 계신다. 주님의 일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축복하심 이외에 어떤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말라기 3:10

10.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 로마서 11:33-34

33. 깊도다 하나님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방법과 염려와 사람의 지혜와 훌륭한 말들은 모두 소용 없음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축복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지점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떡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축복하심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축복하심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축복하심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

을 염려하는 것 보다 축복하심을 더 보아야 한다. 방법과 염려와 사람의 지혜와 훌륭한 말들은 모두 소용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주의하고 일에 피해를 주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약간만 축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실수나 손상이 될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틀렸을 때라도 잘못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은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결과는 실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한번은 위트니스 형제에게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한 일들이 옳았을 것이며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조차도 옳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아무것도 축복하심에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

◆ **주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제하지 않으심**

오늘의 기본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길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습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어떤 기질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은 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만약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구원 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형제들을 탓할 수 없다. 나는 진정한 이유가 축복에 대한 약간의 실망을 감추는데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만약 주께서 우리 안을 통과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더 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셨을 때,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고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일은 축복의 일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여, 아마도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해가 지나면서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면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점점 분명해진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죄도 행할 수 없지만, 해가 지나면서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나갈 때 열매가 있게되고 어떤 형제가 나가면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된다. 우리가 보기에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 ☞ ☞ ☞ ☞ ☞ 수요일 20 20 20 20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고린도전서 1:27, 29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는 그분의 역사

주님의 축복을 받기위한 절대적인 요구들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혹은 운 좋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들이 있으며 그분의 원칙들에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에서는 매우 선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야곱은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셨다. 하나님은 그분만의 이유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상황이나 환경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축복받지 못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갈망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전심으로 묻는 곳에까지 우리 자신이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살것을 소망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하심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 역사의 결과는 축복 안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특정한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은 이중 어떤 것에 대하여 간과하시는 것 같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잘못은 당신이 여러번 반복해서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른 약점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드는 약점에 대하여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공휩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그릇은 너무도 약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너무 얇거나 너무 작게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얇거나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는 그분의 역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휩을 베풀기를 소망한다.

☞ ☞ ☞ ☞ 목요일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3:13하-14상

- 13. ...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 14. 꾀대를 향하여 ... 쫓아가노라

📖 시편 25:7

- 7.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함

오,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온 것과같이 우리로부터 흐르는 듯하다. 나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공휩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계속하여 축복을 받아서 익숙한 것으로 여기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고 실망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천 명의 구원이 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다른 수 천명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매번 하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두 번째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큰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동역자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전에는 전혀하시지 않았던 것을 하시기를 갈망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 뒤로 지나간 것들보다 열 배 혹은 백 배나 더 큰 역사가 놓여진다. 거의 미미한 숫자만이 구원받고 우리가 건축한 집회소가 우리의 축복의 한계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과거에 일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다. 우리의 지난 축복들은 현재 우리의 실패들이다. 이것은 매우 불쌍하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처음 일하러 나왔을 때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 년간 일을 했지만,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처음인 듯 보인다. 어떤 사람은 30 년간 일을 했으나, 그 일을 처음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제하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대나 마음이 더 클 때 더욱더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로 재어서는 안 된다. 적은 수의 떡 덩어리로 사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다. 만약 축복이 크다면,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실로 주께 갈망하며 섬기는 자들이라면, 장래의 결과들은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 ◆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함

하나님의 축복은 새와 같아서 다만 스스로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창문 앞에 오면, 그것을 들어오라고 부를 수 없다. 만약 들어 오면, 그러나 그것을 쉽게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도록 할 수 없다. 새와 같아서, 그것을 불러 들이기는 쉽지 않으나 쫓아내기는 쉽다. 약간의 부주의로 그 축복을 멀리 쫓아 버릴 수 있다.

지난 이 삼년 동안, 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한 동역자가 다른 동역자에게 무언가 말하면, 그들은 다투었다. 그는 전적으로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옳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형제여,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가져올 것에 따라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옳은가 혹은 그른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매일의 생활 가운데 많은 것에서 우리를 제한 할 것이다. 우리가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의 축복을 잘라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 역시 잘라내는 것도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의 표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모두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 우리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틀린 것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나 옳은 것이라해서 축복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설때 축복이 온다. 따라서, 나는 형제들이 서로 다툰 때가 가장 심각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있지만, 축복은 멈춰 버릴 것이다! 형제들, 나는 말할 때 방탕하게 하거나 단지 옳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단단히 경고하고자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형제들은 그들 사이에 말하는 것과 서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옳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옳은 것이 도데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역사는 우리의 능력 위에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은사나 신실함이나 수고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놓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누가복음 5:4-6**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마치도록(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복음 21:5-6**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없이 하시는 것임**

무엇이 축복인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없이 행하시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1 페니의 돈으로 1 페니 값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1 센트의 돈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1 만 페니 값어치의 물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값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다. 이 역사는 우리가 받을 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섯 덩어리의 떡이 오천 명을 먹

였고, 여전히 열 두 광주리를 채울만큼 남았다! 이것이 축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결과를 갖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다만 조금 받았어야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풍성하게 갖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세워진다. 이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결과가 아니라 받은 결과는 우리의 은사로 우리가 받을 것을 넘어서 받은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결과가 바로 축복이다. 더욱더 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로 인하여 아무런 결과도 받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결과를 얻게되며 그 얻은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도 못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봉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단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만을 바란다. 축복은 결과가 그 이유와 아무런 비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기준한 결과를 바란다면, 오직 작은 열매만을 바란다면, 놀라운 결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길로 인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일함에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실 것이라 믿는다.

#### ◆ 하나님께 축복을 허락치 않으실 때

때때로 하나님은 축복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러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축복을 허락치 않으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의 힘과 은사로 우리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야만 하지만,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훨씬 적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였지만, 열매가 없다. 우리는 부지런하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과가 없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허락지 않으실 때이다.

나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는지 궁금하다. 일을 하는데 있어 옳은 방법에 대하여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 옳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아니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종종 우리가 매우 옳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밤새도록 고기잡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옳은 것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산다. 다윈과 아브라함 모두 잘못을 저질렀고, 이삭은 매우 유용치 않았고, 야곱은 매우 교활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축복하였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아마 오늘 여기있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나을지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룰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지 옳은가에 달려 있지 않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먼 곳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무런 축복이 없다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축복이 없다면, 일꾼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런 축복이 없다면 누구도 어떤 것을 줄 수 없다. 아무런 축복이 없다면, 누구도 이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축복이 있을 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못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한번은 집회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청중에게 잘못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듯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청중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다시 말할 때 여전히 틀린 말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패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으로 좌절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방해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롬 9:13)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자를 축복하

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축복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축복은 사람의 혼들이며 헌신한 사람들이다. 축복이라는 말 뒤에는 아마도 50 명의 혼들이 있거나 백 명의 헌신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말씀과 태도와 의견들은 주님의 축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얻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속에서 자극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잃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클 것이다. 축복은 수백 수천 사람들의 혼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구하고 없어지지 않기를 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여야 한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히브리서 6:11-15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일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가진 수용능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과 행동 가운데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워트니스 형제는 1945년에 상해에 있었다. 어느날 그는 형제 집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나는 워트니스 형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보를 하였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 수고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것을 보아야 한다. 때로는 우리 일에 어떤 결과가 있지만 그것은 무미건조하고 빈약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수용능력을 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일들에 있어서 기적과 기대치 않은 일이 있을 것을 계속 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열매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작은 양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에 더 많은 소망이 없게 된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질 것이며,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수고에 상응한 결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오직 상응한 결과만을 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를 보게할 이상을 주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 시험한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기를 시험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가 그의 은사와 능력을 넘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더 맺을 지 알 수 없다. 그에게 축복이 없다면, 그의 신중함과 수고는 헛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 다른 어떤 형제보다 더 좋은 성격과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형제는 그의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질투하여서도 안 된다. 대신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변명을 하면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옳으면 그들도 옳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옳지만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다. 그들은 옳지만 교회는 건축되지 않는다. 우리가 옳지만 헛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멈추게하고 꺾어버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두고 고집세계 다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워치만 니, 『주님의 축복을 기다림』 중에서...)

- \* <주> 여기에 인용된 본문은 워치만 니의 소책자, 『주님의 축복을 기다림(Expecting the Lord's Blessing)』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굵은 글자나 밑줄 등은 강조를 위하여 첨가된 것입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Meeting	Sheppard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an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 2	www.thechurchintoronto.ca

(영어 및 한글 이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